

# 선박용 방화용품의 형식승인 업무와 방재시험소의 역할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다시 고도의 테크놀로지 시대로 변모해가는 국제산업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의 기술과 자본의 역량도 어느덧 선진산업국가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특히 70년대이후 고도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온 조선산업은 우리나라의 기능인력의 우수성과 지속적인 기술의 개발에 힘입어 연간 건조능력이 370만 총톤으로서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조선국이 되었다.

또한 의욕적인 외형적 성장에 못지않게 안으로는 조선자재의 개발에 힘을 기울인 나머지 '87년말 현재에 조선자재의 국산화 비율이 약 80%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한국선급이 지난 5월 31일 국제선급연합회 제 21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동 연합회의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우리나라 는 명실상부한 선진 해운국으로 도약하게 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선박 기술이 국제적 공신력을 획득하게 되어 국내 조선기자재 산업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청에서는 국제적으로 엄격한 성능이 요구되는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업무를 위하여 방재시험소등 3개 기관을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선박용 물건에 대한 성능시험업무의 전문화시대를 열게 되었다. 특히, 선박용 방화용품에 대하여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소를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지정. 운영하여 선박방화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동 방재시험소는 시험연구를 통한 국가방재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기관으로서 15년여에 걸친 협회의 폭넓은 방재업무를 근간으로 방화안전 분야에서 국내기준은 물론 UL, ISO, IMO등 국제기



李 相 根  
(해운항만청 선원선박국장)

준에 의한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등 주어진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선박용 방화용품의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금번 방재시험소에 지정한 시험품목은 스프링클러헤드, 소화기, 소화약제, 화재탐지기등 선박의 소방관련제품과 방화문 및 격벽 또는 갑판에 사용하는 방화용제품등 10개 품목에 이른다.

선박용품은 육상용품과 달리, 국제적인 인정이 필수적이고 해수에 견디어야 하는 등의 특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이를 선박안전법에 근거를 두고 각 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박안전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게 된 것이다. 본 시험업무는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품질관리 면에서의 사후관리, 공장심사방법등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으나 이의 보완을 위하여 제조설비, 검사설비, 인력등에 관한 기초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기자재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선박안전에 관한 기술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진해운국과의 정보교환 및 꾸준한 기술축적이 필요하지만 이는 단기간내에 해결되지는 않는 것으로서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가 요청되며 상당한 투자도 따라야 할 것이다.

방재시험소의 경우 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 믿으며 선박안전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하겠다. \*